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현대상선, 세계 10위권 컨테이너 선사에 진입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머스크, 퍼포먼스팀사와 함께 엔드투엔드 전략 가속화
2. 세계 건화물 물동량, 코로나 사태 딛고 2020년 하반기 증가 전망
3. 미국 Transflo, 코로나19 대응 정보공유 디지털 도구 제공
4.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글로벌 해운시장, 4월 들어 제한적인 회복 조짐



공지사항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명사 스피치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수요 측면의 변화는 예측불허의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가동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더욱 민첩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아가자.”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
(2020. 4. 1. /내일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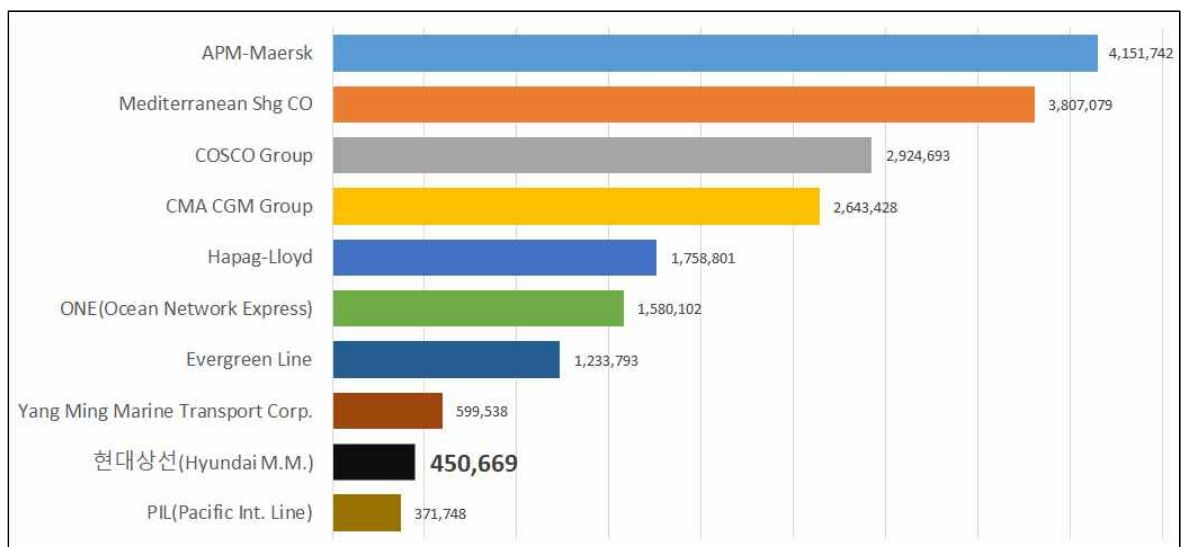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현대상선, 세계 10위권 컨테이너 선사에 진입

- 현대상선(HMM)이 알파라이너(alphaliner)에서 집계한 컨테이너선사 선복량 순위('20.4.7. 기준)에서 9위를 기록함
- 현대상선은 '20년 4월 기준 세계 컨테이너 선복량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 선박 인도분 포함 시 8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20년 4월 현재 총 450,669TEU의 선복량을 가진 선사로 평가되고 있고, 향후 예정되어 있는 신규 선박 인도분(406,708TEU) 반영 시 총 857,377TEU 규모의 선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현대상선의 현재 선복량은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명해운(총 797,638TEU)의 선복량에 근접한 수치로서, 올해 안에 양명해운의 선복량을 웃돌 것으로 보임

'20년 4월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단위: TEU)

자료 : 알파라이너 Top 100(<https://alphaliner.axsmarine.com/PublicTop100/>)

주 : 신규 선박 인도를 통한 선복량 확보 수치는 반영하지 않음

참고자료 : www.alphaliner.com (검색일: 2020. 04. 07.)

김광모 연구원

051-797-4616, momo09010@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머스크, 퍼포먼스팀사와 함께 엔드투엔드 전략 가속화

- 머스크는 고객에게 엔드투엔드(End-to-End)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컨테이너 물류회사로서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기반을 둔 보관배송 회사인 퍼포먼스팀(Performance Team)사에 대한 인수를 마감했다고 발표함
 - 머스크는 도·소매, D2C(Direct to Consumer) 서비스에 전문성과 역량을 구비한 퍼포먼스팀사의 솔루션과 배송센터를 자사의 역내 보관배송망과 통합할 예정임
 - 머스크의 북미지역 보관배송망은 물류 솔루션, 혼재,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륙운송, 시설관리, 야드관리 및 기타 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캐나다의 20개 이상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 머스크의 퍼포먼스팀사 인수는 선사에서 종합 솔루션을 갖춘 통합 컨테이너 물류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머스크 전략의 또 다른 사례임
 - 머스크 나린 폴(Narin Phol) 북미지역 상무이사는 "고객들은 이제 퍼포먼스팀사의 옴니채널 이행 서비스를 공급망에 추가하여 고객 맞춤형 보관배송 모델을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힘
 - 시장 변동에 대응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은 머스크의 보관배송 서비스와 결합되어 공급망 관리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어려운 시기에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 머스크에 따르면 현재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 향상, 재고관리 통제, 소비자 경험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관배송 분야를 지역 배송센터, 점포 및 소비자로의 화물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최상의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
- 특히 북미시장의 경우 현재 보관유통 부문의 일부만이 아웃소싱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시장이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어 제3자 보관배송 업체에게는 상당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세계 보관배송 부문 시장규모는 2천억 달러 이상, 북미지역은 5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음

■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 / www.canadianshipper.com (검색일: 2020. 04. 01.)

김은우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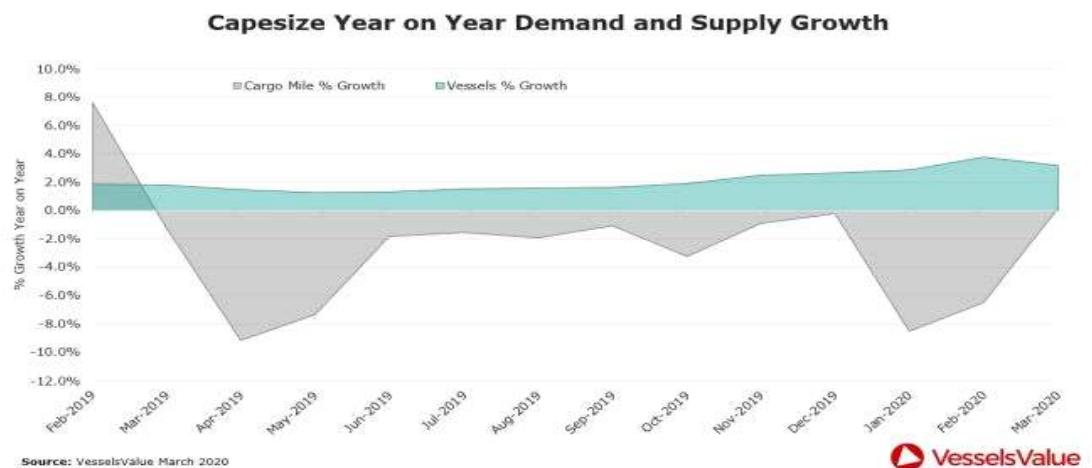
051-797-4680, hisgrace@kmi.re.kr

세계 건화물 물동량, 코로나 사태 딛고 2020년 하반기 증가 전망

● 건화물 시장, 지난 1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됨

- 지난 12개월동안의 케이프사이즈 수요와 공급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선박 공급의 과잉과 수요의 감소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며 건화물선 시장 경기의 침체가 지속됨
- 수요의 감소는 2019년 4월 브라질 댐 붕괴로 인한 철광석 생산량 감소,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에너지 소비 감소 등으로 비롯된 것임

케이프사이즈 수요 · 공급 성장률 추이



자료 : <https://marineinsight.com> (검색일: 2020.4.2.)

● 배슬밸류(VesselsValue), 올해 3분기부터 케이프사이즈 TCE¹⁾ 증가하며 향후 3년간 증가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 배슬밸류의 자료에 따르면, 공급 감소 및 수요 증가로 3분기에는 하루 30,000 달러, 향후 3년간은 일일 20,000~35,000 달러의 수입을 예상함
- 공급감소 요인으로는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폐선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수요증가 요인으로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약 25조위안)를 들 수 있음. 이 경기 부양책은 철강 및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의한 건화물선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무역전쟁 및 유가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존하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 참고자료 : <https://marineinsight.com/>, <https://maritimeexecutive.com/> (검색일: 2020. 04. 02.)

김성아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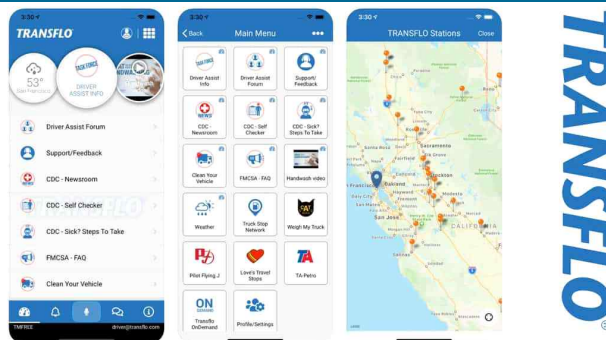
051-797-4792, ksa@kmi.re.kr

1) ton of coal equivalent

미국 Transflo, 코로나19 대응 정보공유 디지털 도구 제공

- 미국의 물류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인 Transflo는 공급망 유지 및 트럭 운전자 보호를 위한 3가지 무료 디지털 도구를 제공함
 - 코로나19(COVID-19)에도 불구하고 트럭 운전자들은 최일선에서 화물 운송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바이러스 노출에 대한 우려가 높음
 - Transflo는 공급망을 유지하고 화물 트럭 운전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최소화를 통한 감염 방지를 위해 3가지 무료 디지털 도구를 내놓음
- 트럭 운전자들은 온라인포럼, 소셜 공유 플랫폼, 운전자 도움 모바일 앱 등 3가지 무료 디지털 도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서로 공유할 수 있음
 - 온라인포럼 앱(Driver Assist Task Force)은 운전자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음으로써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며 화물 운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스크 착용 필수 장소, 안전한 급유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소셜 공유 플랫폼(Social Sharing platform)은 화물 트럭 운전자들이 주행시간 중 상호 의견 교환, 조언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도구임
 - 운전자 도움 모바일 앱(Driver Assist Mobile App)은 문서 스캔, 트럭 정류장 위치, 운전자 건강 및 차량 유지 팁, 업계 뉴스,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임
- Transflo는 무료 리소스 제공을 통해 비즈니스 연속성과 운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Transflo의 CEO인 프랭크 아델만은 화물 트럭 운전자는 미국 경제에 필수적이며 트럭 운송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관리함으로써 업계 비즈니스 연속성과 운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Transflo의 트럭 운전자용 코로나19 디지털 도구



자료 : <https://www.freightwaves.com/> (검색일: 2020. 04. 03)

참고자료 : <https://www.freightwaves.com/> (검색일: 2020. 04. 03.)

안승현 전문연구원

051-797-4693, shan@kmi.re.kr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글로벌 해운시장, 4월 들어 제한적인 회복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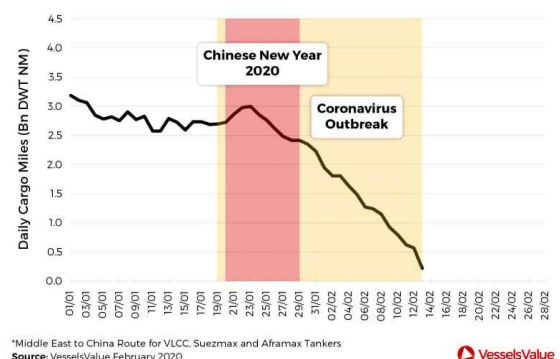
- 코로나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해운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중국은 다수의 국가들과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중국 수요와 수출에 의존해옴
 -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산업이 위축되었고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됨
 - 또한 유가가 30% 하락하는 등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석유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운임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1월,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 확산되면서 항만 운영 일부가 제한되기 시작함
 - 당초 코로나19에 발생으로 항만 운영이 제약을 받으면서 수요가 소폭 감소하는 등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으나 춘절 휴일이 연장되면서 수요 감소 영향이 평년에 비해 더 악화되었고 오래 지속됨
 - 중국은 선박운항을 제한하고 투입인력을 감축했으며 조선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일본 근해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각국의 항만들은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을 시행함
 - 상하이국제해운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항만의 하역능력이 20~50% 감소했으며 항만 보관시설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함
- 2월, 세계 해운업계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함
 - IHS Markit에 따르면, 중국 항만의 폐쇄와 활동 제한은 해양부문 전반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했으며 무역에 영향을 미침
 - 올해 2월 중국 본토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IHS Markit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월의 51.1에서 2월에 40.3으로 떨어지는 등 조사 시작 이후 16년 만에 전례 없는 감소를 기록함
 - 시장 정보기관 VesselsValue의 2월 중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 수요는 2019년 하루 평균 34억 톤이었으나 거의 0에 가까운 정도로 급격히 감소함

중국 구매관리자(PMI)지수와 원유운반선 수요 추이

Caixin China PMI and export growth



2020 Chinese Crude Tanker Dem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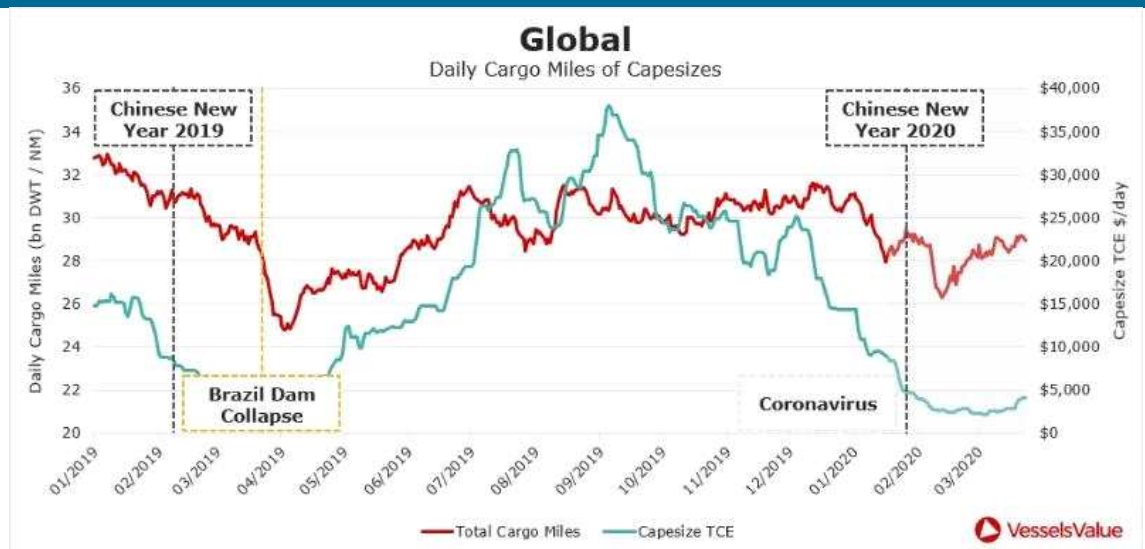


자료 : <https://www.ship-technology.com>, (검색일: 2020. 04. 07.)

주 :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만든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임

- 운임부문에서는 대형 유조선사와 대형 벌크선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음
 - 중국은 VLCC(Very Large Crude Carrier)를 통한 원유 수입 비중이 높아 중국의 경제활동 감소는 유조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또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던 케이프사이즈 시장 상황은 더욱 나빠졌으며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컨테이너 부문도 큰 영향을 받음
- 3월, 코로나바이러스의 유럽 및 미국 확산으로 세계 해운업의 위기 확산 우려가 제기됨
 - 중국의 사망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유럽의 환자가 급증했고 미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3월 11일 WHO가 팬데믹을 선언함
 - 드류리 관계자는 세계가 전 분야에 걸쳐 중국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용선료 하락, 공급망 장애 등의 충격은 이미 가시화됐고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 IMF는 2020년 세계는 최소한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세계적인 불황을 전망함
 - 중국의 생산성이 아직 약 70%에 머무는 등 동아시아발 컨테이너 화물이 감소했으며 이는 전 세계 해운업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음
- 4월, 수요회복 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VesselsValue 자료에 따르면 4월 한국과 일본의 수요 회복으로 3월 하순에 케이프사이즈의 톤-마일 (bn DWT NM)이 증가함
 - 또한 중국의 대형 컨테이너선 운항 횟수가 다시 증가하고 많은 업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컨테이너 부문의 회복과 시장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수요 데이터의 신중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아울러 해운시장은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상업성이 떨어지는 선박의 해체가 지속되어야 하며, 2020년 1분기에 약 500만DWT 규모의 건화물선이 해체를 위해 매각됨

세계 케이프사이즈 톤-마일 수요와 시장



자료 : <https://www.ship-technology.com>, (검색일: 2020. 04. 07.)

주 : Cargo Miles은 재화중량톤수와 거리를 곱한 단위로 bn DWT-NM(10억 재화중량톤수 × 해리)이며 본문에는 톤-마일로 기재함



-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세계화는 지속되어야 하며 운송기술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코로나19의 가장 큰 장기적 영향 중 하나는 공급망의 다양화 방안 모색일 것이며 해운물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항만이 개방되어야 함
 -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보여주듯 앞으로 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시 대비해야 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는 해운업계의 디지털화와 기술 진보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참고자료 : www.ship-technology.com, (검색일: 2020. 04. 07.)

신정훈 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공지사항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수정공고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 모집과 관련하여(20.2.24 시행)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현 행	수 정
접수 기간	○ 2020.2.24.(월) ~ 2020.4.3.(금) 18:00까지	○ 2020.2.24.(월) ~ 2020.5.28.(목) 18:00까지

2020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 대상자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대상 사업

-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3.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규모)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구분	지원 비용	지원비율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인수합병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시설투자형		

□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대상자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사업

- **(개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예시

- 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② **(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③ **(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단,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 2. 24(월) 09:00 ~ 2020. 5. 28(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서 1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1
②	사업제안서 10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2
③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⑥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가산점)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e-mail 접수 불가

선정 기준 및 방법

□ 선정 기준

-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4, 051-797-4913)로 문의 바람